

가세로 태안군수,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3년 연속 수상

‘혁신경영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

가세로 태안군수가 1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중앙일보·월간중앙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JTBC 후원으로 열린 ‘제10회 2021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혁신경영’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거듭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경영을 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선정,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가 군수가 중앙정부와 국 회 등을 꾸준히 방문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결과, 태안역 사상 최초로 50년 숙원 사업인 ‘국도 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과 ‘국

지도96호선 두아-신진 4차로 확포장 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을 비롯,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지정(타당성 용역비 국비 3억 원 확보)’, ‘전국 최초로 서울대와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협약 체결(기초자치단체 중)’등의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1년 국·도비 확보(1161억 원)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 선정(582억 원 확보) △어촌뉴딜 300사업 등 49개 사업 공모 선정(407억 원 확보) △충남도 최대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확보(126억 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 긴급 투입(348억 원) △코로나19 군민 고통 분담 각종 사용료 감면(상수도 요금 8억 원, 농기계



임대료 7542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 1700만 원) △농어민수당 80억 원 지급(9896농가 가구당 80만 원씩)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3511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가 군수는 △전국 최초 태안UV랜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안흥진성 국가문화재 승격 △전국 최초 대규모 공동묘지 정비 △전국 최초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을 올려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군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들을 거뒀다”며,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에 놓여있으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은 6만 3천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자체 태안’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새로운 태안’, ‘더 살기 좋은 태안’,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필 기자

홍성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한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촘촘한 건강복지망 구축

홍성군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복지망 구축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군은 임신부, 영유아의 건강지원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26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군은 충남도 내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6개월 이상 거주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정부지원과 동일한 횟수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소독 초과료 정부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와 사실혼 가정, 한방 난임치료 등 폭넓은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고자 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37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중 42명(30.6%)이 임신에 성공했다. 예비맘 건강검진과 임신부 등록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86명의 임신부를 등록·관리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면·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41회 운영, 354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올해 임신·철분 등 영양제와 임신 초중기 건강검진쿠폰, 전문 교수진들의 임신부 건강교실과 영양교육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홍성의료원 내 충남의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어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과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총8억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원 내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 의료진 12명 산모실 10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장애인·고위험·다문화 이주여성 임신부와 의료수급계층 영유아 등 취약계층 건강지원과 육아용품 무료 대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고 예비아빠 임신체험, 임신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운영,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출산장려금 제공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이 키우는 가정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인건비도 지원한다. 또한 0~23개월 영유아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등을 지급하고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운영하며 임신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촘촘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비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사업 실시

세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제천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며,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상 학생이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해주며,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1학기 학자금은 5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제천시 청 홈페이지 소식알림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천시를 구축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해 동사업에서 607명에게 5억2천9백여만 원의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준 바 있다.

/채철식 기자

청주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주시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하의 산모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과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수령 받은 일자(카드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에정일 이후 1년까지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또는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043-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6,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옥 기자

당진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019년 충남 최초 실시, 올해 3억6천만 원 지원

당진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올해 관내 고등학교 8개 대상으로 입학신입생 1,182명에게 무상교복비 3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액 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별 입찰가로 동복 1벌, 하복 1벌을 지원하며, 올해 상한액은 30만8000원으로, 시는 2월 학교별 신입생 수와 지원액을 확정했고, 3월초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입생들은 각 학교에서 정한 구매처에서 교복을 맞추고 수령할 수 있으며, 구매대금은 각 학교에서 업체로 일괄 지급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2019년 충남 최초로 시작되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며, 그동안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이 주소

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신입생 1,182명 지원 이후 타 지역에서 당진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3월, 9월 중 개별 신청을 받아 교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무상교복지원을 확정하고 2019년 충남 최초로 무상교복을 실시했다”며, “당진에서 시작된 고등학생 무상교복이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아 다른 시군도 점차 시행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아이 키우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금현 기자

김재중 옥천군수,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김재중 옥천군수는 UN국제부패방지 날 기념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2020년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 주는 상으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7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해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시상식이 연기되어 19일 옥천군청에서 수상식이 열렸다.

그동안 김재중 군수는 민선 7기 군

정을 이끌며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상시 자가 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발표 결과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재중 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더욱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패관행을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옥천군이 청렴 선도 도시로 정착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기국 기자

예산군,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신청하세요!”

예산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기피 등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대입 축하금은 대학(교)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및 부모 모두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되며, 입학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유지 1년경과 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입학 이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에 해당할 경우 연중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관 기자

청양군, 어린이 보육 지원에 50억 투입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내 14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과 어린이집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각 어린이집에는 원아 1인당 전환경급식비로 연간 7만5000원을 지원하고, 교재·교구 구입비는 어린이집 1곳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또한 월7만원씩 지원한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5곳에는 연간 15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보육분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아동상해보험료 ▲보육시설 가스·

전기 안전 점검비 ▲차량운영비 지원도 강화했다. 또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를 위해 최대 월6만원의 특별활동비, 최대 월3만원의 차량운행비를 지원한다.

셋째 이후 아이들에게는 만5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0~83개월까지 매월 10만원, 행복키움수당은 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김돈곤 군수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면 지역사회 전체가 행복하다”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해 부모 입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